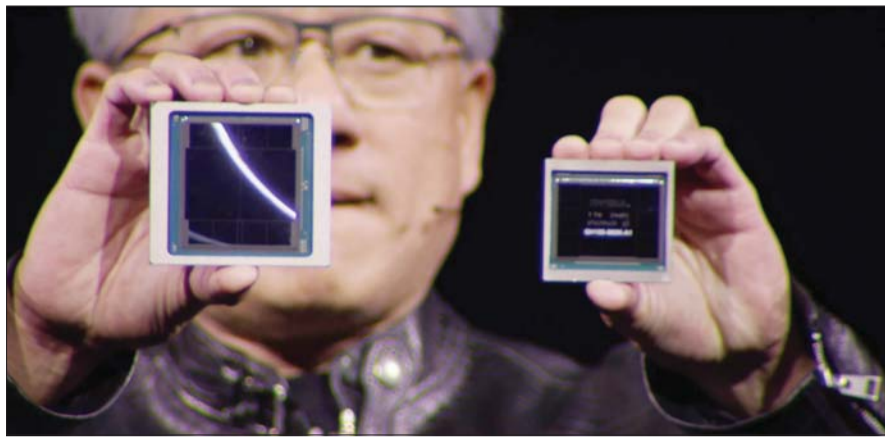


추론시간 5배 빠른 시칩 '블랙웰'... 비용·에너지는 25배 ↓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 공개
GTC2024서 S/W 플랫폼 등 발표
반도체 다이 두개 연결 방식 제작
트랜지스터 800억개→2080억개
“블랙웰, 칩 아닌 플랫폼의 이름”

엔비디아(NVIDIA)가 차세대 인공지능(AI) GPU '블랙웰(Blackwell·B200)'을 공개했다. 두 개의 GPU를 연결해 하나의 칩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과거 챗GPT 등 AI 모델의 응답 생성에 걸리는 추론 시간이 5배 빨라졌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이전 모델 대비 25배 더 적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개막한 GTC2024에서 차세대 AI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신제품을 발표했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가 H100(왼쪽)과 신제품 블랙웰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기는 훨씬 작지만 연산 속도와 전력 소모량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가격미정. /NVIDIA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AI 칩 블랙웰(B200)과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 님(NIM)을 소개했다.

블랙웰은 기존 H100과 달리 4나노급 공정(4NP) 반도체 다이(Die)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2개 GP

U를 연결해 하나의 칩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800억개였던 트랜지스터가 2080억개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현시점의 기술로 1개 GPU 내에 추가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한정적인 데에 따른 아이디어로 2개 GPU를 연결했음에도 구세대 모델인 호퍼 아키

텍처 방식의 H100보다 작다.

젠슨 황은 “다양한 모델에서 처리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가 등장하면서 AI의 적응성과 성능이 더욱 향상 돼 최근에는 최대 1조개의 매개변수까지 사용된다”며 “이는 곧 컴퓨팅 성능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매개변수를 늘리면 이러한 모델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블랙웰 2개와 CPU 그레이스(Grace)를 한 셋트로 36개가 합쳐져 구성된 가속기 GB200도 소개했다. GB200 NVL72는 초당 1.4엑사플롭스 AI 연산이 가능하며 HBM3e 메모리를 30TB 내장한다. 이전 모델인 H100 36개로 구성된 시스템 대비 LLM 처리 속도는 30배 빠르다. 인텔, 제온, AMD 등 기존 x86 기반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가속기 HGX B200도 향후 출시할 예정이다.

젠슨 황은 “블랙웰은 칩이 아닌 플랫폼의 이름”이라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 님(NIM)을 추가로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대신 AI 모델을 조립하고 명령하며 작업 결과물을 학습시키고 AI가 내놓은 것들을 검토하는 업무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개발 언어를 코딩해 작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지었다.

님(NIM)은 구형 엔비디아 GPU도

최신 AI 소프트웨어 실행 프로세스에 최적화 시킴으로써 AI 모델 훈련에 드는 전력을 줄여준다. 엔비디아 기반 서버를 이용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 모델로 GPU 당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마누비르 다스 엔비디아 부사장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블랙웰 이후로 실제로 달라질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상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웰은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시장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 기조연설 전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는 한때 주당 920달러를 넘기도 했으나 870달러대까지 떨어진 채 장마감 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시장의 90%를 장악하고도 초고가를 유지 중인 엔비디아로 인한 AI 개발 경쟁의 불공정과 TSMC의 반도체 생산 차질이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조연설에서 대략의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기존 H100의 가격인 칩당 2만 5000달러~4만 달러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다. 반론으로 일반적인 행사 전후 역겨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물 공개 후 투자자들의 수익화가 이어졌을 뿐, 블랙웰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작년 혼인건수 1% ↑... 12년 만에 '반등'

통계청 '2023 혼인·이혼 통계'
초혼, 남자연상 부부 64%로 압도적

지난해 결혼한 남녀 5쌍 중 1쌍은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이른바 '연상연하 커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며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전년대비 2000건(1.0%) 증가했다. 지난 2012년 이후 11년째 감소를 거듭하다 12년 만에 처음 반등한 것이다.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연령차이별 초혼 건수는 남자가 연상인 부부가 9만 6000건, 여자가 연상인 부부 2만 9000건, 동갑 부부 2만 4000건이었다. 세 부류 모두 2022년보다 늘어났다.

초혼 부부중 남자연상 부부의 비중은 64.2%로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나 전년 대비 0.1%포인트(p) 감소했다. 여자 나이가 많은 경우는 19.4%에 달했다. 5쌍 가운데 1쌍 가까이가 여자연상이었다. 동갑내기는 16.4%를 차지했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5.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자 3~5세 연상(24.5%), 동갑(16.4%), 여자 1~2세 연상(13.0%)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尹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규제 완화”

» 1면 '10조 부어 서울 원도심'서 계속

아울러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재산세 증가 부담, 지역 건강보험료 상승,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 제외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증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 놔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 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